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형태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관계

문정희* · 박경란
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The Relationships among father's raising method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ren's self efficiency, and Their Depression

Jung Hee Moon* · Kyung Rhan Park
Inje University

1. 서론

최근 가족 내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갖는 생각과 대하는 행동은 자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양육방법에 따라 자녀의 자기가치감과 효율감,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은 생활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으나, 이러한 측면에서 아버지에 초점을 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형태, 아동의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양육형태 경향과 관련변인별 차이비교, 아동의 자기효능감 경향과 결정요인의 파악, 그리고 아동의 우울정도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 간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매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본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3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남녀아동 431명이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표 1> 척도구성

| 변 인 | | 문항 | 척도 | 신뢰도(α) |
|--------|----------|----|----|-----------------|
| 양육 형태 | 온정형 | 6 | 4점 | .867 |
| | 자율형 | 3 | 4점 | .721 |
| | 불신형 | 4 | 4점 | .711 |
| 자기 효능감 | 자신감 | 7 | 4점 | .663 |
| | 자기조절감 | 8 | 4점 | .828 |
| | 과제난이도 선호 | 5 | 4점 | .712 |
| 우울 | | 20 | 3점 | .909 |

2.2 자료분석

본 자료는 요인분석, t-검증, ANOVA, 위계별 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3. 조사결과

3.1 아버지의 양육형태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형태는 온정형, 자율형, 불신형의 3개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아동들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적 태도보다는 온정적 태도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였다. 배경변인별 비교에서, 아동의 성은 '자율형'과 '불신형'의 양육태도에서,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온정형'의 양육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2. 아동의 자기효능감 결정요인

아동의 총체적인 자기효능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68점이었으며, ‘자신감’, ‘자기조절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전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변인은 ‘온정형’이었고, 그 다음이 ‘자율형’, ‘불신형’, ‘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22.2%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별 결과에서는, ‘자신감’(19.8%)은 ‘불신형’, ‘성’, ‘온정형’에 의해, ‘자기조절감’(20.4%)은 ‘온정형’과 ‘자율형’의 2변인에 의해, 그리고 ‘과제난이도 선호’(5.3%)는 ‘자율형’ 1개 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아동의 우울의 결정요인

<표 2>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 | | 모델 1 | 모델 2 | 모델 3 |
|--------------------|--------------------|--------|----------|-----------|
| | | B | B | B |
| 배경 변인 | 성 ^a | .053 | 125* | .038 |
| | 출생순위1 ^b | -.100 | -.067 | -.019 |
| | 출생순위2 ^c | -.149 | -.094 | -.067 |
| | 부나이 | -.052 | -.023 | -.053 |
| | 부학력1 ^d | -.092 | -.069 | -.072 |
| | 부학력2 ^e | -.173* | -.120* | -.073 |
| 양육 형태 | 온정형 | | -.143* | -.016 |
| | 자율형 | | -.011 | -.001 |
| | 불신형 | | .280*** | .151** |
| 자기 효능감 | 자신감 | | | -.448*** |
| | 자기조절감 | | | -.167** |
| | 과제난이도선호 | | | .045 |
| 상수 | | 36.671 | 32.189 | 57.399 |
| R ² | | .038 | .173 | .383 |
| 수정된 R ² | | .023 | .152 | .361 |
| R ² 증가량 | | | .135 | .210 |
| F | | 2.525* | 8.356*** | 17.211*** |

* p<.05 **p<.01 ***p<.000

주) 다음의 변인은 가변수로 처리하였음.

^a:1=여아 ^b:1=장자, ^c:1=장자외, ^d:1=대학교졸, ^e:1=대학원졸

아동의 우울 수준은 3점 만점에 평균 1.46점으로 ‘가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를 통하여 아동의 우울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친 가장 큰 변인은 ‘자신감’(B=-.448)이었으며, 그 다음이 ‘자기조절감’(B=-.167), ‘불신형’(B=.151)의 순으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8.3%였다. 전반적으로, 아동들은 자신감이 낮을수록, 자기조절감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불신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였다.

아버지의 양육형태와 아동의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세 하위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고찰한 결과, 아버지의 온정형 양육태도는 자신감(B=-.087)과 자기조절감(B=-.072)을 통해서, 자율형 양육태도는 자기조절감(B=-.062)을 통해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아버지의 불신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자녀의 자신감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형태는 자기효능감 가운데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며, 아동의 우울을 완화시키는 간접적인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들의 양육형태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이 재확인시켜주었다. 그러므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부-자녀가 상호 친밀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 역할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부모역할 기술을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이송이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 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61~71.